



나는 희망의 역할모델이고 싶다

지난 2월 24일과 3월 13일은 우리나라 여성 공학계에 뜻깊은 일이 있었던 날이다. 2월 24일은 이공계 각 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여성 공학인들의 이야기를 엮은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의 출판 기념회, 3월 13일에는 그 여세를 몰아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날이다. 이공계 침체 현상을 역전시키고, 그 미래를 밝게 띄워줄 이런 반가운 움직임의 중심에 퓨어셀파워 신미남 대표가 있다. 포근한 인상과 달리 이공계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비전에 대해 자분자분 풀어내는 표정에서 단단한 리더십과 도전정신이 풍겨 나왔다.

퓨어셀파워

신미남 대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_ 이공계 사기진작이라는 취지에 적극 동의한 18명이 모여 함께 책을 쓴 것이다. 평범한 이공계 여성 엔지니어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기결단과 성취를 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그 결단의 과정 뒤엔 다양한 도전과 풍부한 삶이 놓여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공계를 꿈꾸는 여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할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 여성과학자의 삶을 다룬 전기를 읽고 지금에 이르렀듯이 말이다.

영원한 나의 역할모델, 마리 퀴리 부인 _ 고등학교 때 전기를 통해 접하게 된 후 퀴리 부인은 내 삶의 역할모델이 되었다. 대학 때도 매년 가을이면 다시 책을 꺼내 읽을 정도였다. 성공한 삶은 돈, 지위보다 사랑, 성취, 국가 등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에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 볼 때 퀴리 부인은 일과 삶을 함께한 사랑,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과학자, 국가와 인류를 사랑한 박애주의자로 성공한 사람이다. 남편과 내가 우리 집의 가훈을 사랑, 성취, 봉사로 정한 것도 퀴리 부인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옹지마와 전화위복 _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은 없다. 국내 대기업에서 연구원생활을 할 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치료에 시간이 걸려 실험 등의 연구활동을 할 수 없어 관리분야의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때 내가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캐나다에서 경영컨설턴트의 길을 가며, 차세대 대표적 청정에너지인 연료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에 눈을 뜨고,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푸얼셀파워를 설립, 경영하고 있다. 지금도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벤처의 길을 찾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난 지난 삶이 준 교훈을 되새기며 해결하려 노력한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게 주는 긍정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라고.

이 땅에서 이공계 여성이 산다는 것은 _ 대학 땀, 내 행동과 성과물 하나하나가 ‘여성의 표본샘플’ 처럼 비취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그 강박관념 이외에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엔지니어로서의 길은 내게 많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해서 이룬 것이 아니다. 특히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여성 엔지니어로서는 더욱 주위의 많은 도움과 희생이 있어야 했다. 늘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고, 그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_ 조금씩 지금의 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아닐까. 나이를 들수록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현명해지는 것이 스스로도 흐뭇하다. 하루하루 비즈니스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면 맘 속으로 다짐하고는 한다. 다음에 만날 땐 좀더 내가 나아져 있었으면 좋겠다 고 늘 속으로 되새긴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_ 이공계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삶으로 가는 출구가 있으며, 노력의 대가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직업임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정책을 세우고, 기업은 재교육과 일한만큼 돌려주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 부모님들은 돈이 금방 되는 일보다 자녀가 좋아하는 일로의 진학지도, 특히 청년실업 당사자에게는 1, 2년 편한 직장보다 5년, 10년 뒤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길 권한다. 젊었을 때 더 많이 고통을 느끼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젊었을 때 어렵게 배울수록 갈수록 인생은 점점 쉬워진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이제껏 살아오며 느낀 진리중 하나이다.

공학계 후배들에게 역할모델이 되고자 _ 학교때 전공과목의 공부에만 열중했지 이후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스킬을 트레이닝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뜻을 모은 현업 기업가 출신이 모여 지난 3월 13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를 발족시켰다. 여성 공학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모델로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